

열림, 컨텍스트, 해석의 한계*

— 움베르토 에코의 기호학적 해석 전략 비판

박상진

1. 시작하는 말

어떤 사람이 오래 전에 어떤 메시지를 병 속에 넣어 바다에 띄워보낸 상황을 생각해보자. 의미가 메시지의 존재를 지탱한다면, 그 의미는 어떻게 확인될 수 있을까? 오랜 세월 동안 메시지는 병 속에 갇힌 채, 병 외부의 세계와 절연되어왔다. 이는 예컨대 현상학이 빠져든 ‘세계 없는 관념’과 다르지 않다. 그 메시지가 수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 누군가에 의해 발견되었다고 하자. 말하자면 그 순간 메시지는 병에서 나와 세상에 개봉되면서 비로소 존재하기 시작한다. 그 순간은 메시지가 병 속에 들어갔던 때부터 시작해 기나긴 침묵과 괄호 속에서 보내야 했던 부재의 상황이 깨지는 순간이고, 동시에 세계와의 역동적 연관 속에서 시시각각으로 무수한 의미들을 얻고 버리고 또 얻으면서, 자체의 의미를 구축해나가며, 비로소 존재하기 시작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움베르토 에코는 병 속의 메시지가 세계와 관련을 맺을 때, 그 관련을

* 이 글은 1999년 10월 6일부터 11일까지 독일 드레스덴에서 열린 제7차 국제 기호학 대회에서 발표한 글을 보완하고 발전시킨 것이다.

맺는 매개적 행위, 즉 해석은 메시지 자체의 한계에 충실할 것을 요구한다.¹⁾ 이는, 말하자면, 메시지를 중심으로 볼 때 메시지의 존재성을 존중하라는 주문인 반면, 세계의 측면에서 보면 부재의 상황에 충실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병 속의 메시지는 그 순수하고 고립되고 내적인 의미를 고수하도록, 해석의 한계를 그 메시지 내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하이에커식으로 말해 '세계 내적 존재' 이전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세계와 역사와 현실이 한 쪽으로 밀려나는 현상학적인 태도의 유물로 보인다. 에코가 우려하는 것은 아마도, 병 속의 메시지가 원래 부재의 상황, 또는 절대적인 고독한 존재의 상태에 빠지기 이전에 지녔던 컨텍스트가, 그 메시지가 존재의 상황, 또는 세계와의 역동적인 관련 속에서 부활하는 순간의 컨텍스트에 의해 제멋대로 해석되어 부정부적이고 지나친 상대주의적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설령 병 속의 메시지를 열어본 백 명의 사람이 백 개, 아니 수천, 수만 가지의 해석들을 내놓는다 해도, 그 병 속의 메시지는 결코 훼손되지 않는다. 다만 새로운 삶을 시작할 뿐이다. 주체와 마찬가지로 텍스트는 세계 내적 존재로서 비로소 제 의미를 가진다. 병 속의 메시지는 영원한 객체가 아니고 또 그것이 내던져질 이 세계도 고립된 객체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그 메시지를 읽는 주체도 이 세계와 격리된 관조적인 존재가 아니라, 메시지를 읽으면서 세계를 구성하고, 그 세계 내적 존재로서 메시지를 해독하며, 메시지와 세계를 연결하고, 그 자신도 그 연결의 축이 아니라 과정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텍스트와 세계와 주체가 역동적으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 그러한 시간과 공간은 컨텍스트라는 말로 지칭될 수 있다. 그 속에서는 아무 것도 고정되지 않는다. 병 속의 메시지는 그것이 병에서 나와 세상의 빛에

1) Eco, Umberto, *I limiti dell'interpretazione*, Milano: Bompiani, 1990. 영어판으로는, *The limits of Interpretation*,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94. 이하 *LI*로 표기함. 우리말 번역판은 (프랑스어판에서 옮김), 『해석의 한계』, 김광현 역, 열린책들, 1995.

둘러싸일 때 비로소 병이라는 일종의 감옥을 인지하게 된다. 자신이 들어
앉았던 껍데기에서 벗어난 메시지는 비로소 병 속의 메시지보다 훨씬 더
자체에 충실한, 본질적인 것이 될 것이다.

위의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발신자와 텍스트, 수신자라는 해석의 세 가
지 축을 설정할 수 있다. 이들 축은 해석 과정에 의해 서로 매개된다. 병
속의 메시지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곧 그 메시지를 작
성한 발신자와 그 메시지 자체,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수신자 중 어디에
중심이 두어져야 하느냐 하는 문제와 다르지 않다. 나는 해석의 중심, 또
는 한계는 발신자와 텍스트, 수신자의 어느 한 곳에 두어질 수 없다고 생
각한다. 발신자와 텍스트, 수신자의 삼분법은 논의의 편리함을 위해 설정
될 수 있는 범주들이긴 하되, 그 각각이 뚜렷한 독립성을 갖는 것도 아니
고, 더구나 한 텍스트의 의미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는 물음에는 그 세
가지 범주를 모두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전제가 요구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그 세 범주를 포괄하면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는 컨텍스트라는
개념을 떠올릴 수 있다. 이 글에서 결국 의도하는 것도 해석의 한계 내지
기준이 컨텍스트에 있고 컨텍스트에 근거한다고 하는 점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왜 굳이 해석의 한계가 텍스트가 아닌 컨텍스트에 근
거한다고 주장하는가. 문제는 텍스트와 역사가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다.
물론 포스트 구조주의적 인식에서 보면 텍스트의 개념이 역사와 현실의
영역까지 확장될 수 있고, 역사와 현실의 의미가 객관주의적 인식론에서
추출된 선형적이고 고정된 것이기 때문에 텍스트로부터 역사와 현실을 굳
이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식으로 텍스
트와 현실을 구분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어떤 실천적 함의를 갖지 않는
한, 텍스트를 현실과 따로 놓고 생각하는 구조주의적 인식론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즉, 우리는 텍스트의 한계는 물론 텍스트의 확산—상호 텍스
트성이라는 이름 아래—이 갖는 역사적·현실적·세계 내적 무의미성을
지적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텍스트와 역사의 상호 단절 문제는

텍스트 자체나 작가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해석(자)의 문제다. 이는 삶의 문제며 여기에는 의식의 형성 및 행사, 유지의 문제에 대한 이론적 성찰이 개입한다.

이것이 사실상 이 글의 목적이다. 즉 비평과 이론의 역사적·정치적 의미에 대한 성찰이다. 정치라는 말을 우리가 사회 생활을 조직하는 방식과 이것이 포함하는 역학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역사는 그러한 정치가 실천의 형태를 띠면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시공간이라고 볼 때, 역사와 정치를 무시해버리고 순수하고 중립적인 분석과 비평을 추구했던 구조주의적 발상과 그 체계는 오히려 그 자체가 굳은 이데올로기적 신념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역사와 현실을 고려하는 듯하면서도 결국 국에는 무한하게 확장된 텍스트들의 연쇄로 그들을 치환해버린 채, 모든 종류의 주체적·의식적 실천의 함의를 담은 구조 속에 편입시켜버린 포스트 구조주의적 발상과 체계도, 텍스트 중심적인 접근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면에서, 세계를 포착하고 호흡하는 데 한계를 드러낸다. 나는 이 글에서 어떤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려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구조나 신화를 찾아나서는 것이든, 변화무쌍한 현실을 어떻게든 포괄하는 것이든, 그 어느 한 쪽에 가담할 생각은 없다.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그 두 가지 방향은 모두 특정한 이데올로기적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호를 수 있다는 전제 위에서, 이데올로기 자체가 아닌, 그야말로 일고구만 들어나가야 할 현실과 역사를 호흡하는 것의 의미와 구체적 방법을 음미해보려는 것이다. 이 글은 그것을 위한 일종의 전략을 짜려는 논의다. 그런 측면에서 이 글은 에코의 기호학 이론, 또는 텍스트 연구가 컨텍스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보다는,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정당화의 글이다. 대상과 방법의 논의는 단지 그 정당화를 강화시키는 수단이다.

2. 컨텍스트의 정의들

I. 에코: 기호학적 시기

컨텍스트 개념에 대한 에코의 입장과 이해, 운용 등에 관해서 나는 이 글에서 에코의 작업을 소위 전기호학적 pre-semiotic 시기와 기호학적 semiotic 시기로 나누어 고찰하려 한다. 전기호학적 시기는 기호학 시기의 전 단계로서, 에코가 자신의 기호학 체계를 수립하기 이전에 일종의 준비 과정으로 보냈던 시기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대다수 평자들의 시각이다.²⁾ 그러나 나는 이 글에서 에코의 전기호학적 시기가 기호학 시기와 별개의 독립적인, 더 나아가 기호학 시기에서 그가 주장하는 것과 엇나가는 입장과 개념을 품고 있는 시기로 보는 것을 전제로 한다.³⁾ 그렇게 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컨텍스트의 개념이 그 두 시기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따라서 나는 컨텍스트 개념이 전기호학 시기에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살피고, 기호학 시기에서 그 개념이 어떠한 심각한

-
- 2) 이에 대해 참고할 만한 사람들은 많다. 추려서 보면 다음과 같은 글들을 참조할 수 있다. Bondanella, Peter, *Umberto Eco and the open text: Semiotics, fiction, popular cult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Caesar, Michael, *Umberto Eco: Philosophy, Semiotics and the Work of Fiction*, Polity, Cambridge, 1999. Capozzi, Rocco, "Interpretation and Overinterpretation: The rights of texts, readers and implied authors," Capozzi (ed.), *Reading Eco: an Anthology*,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97, pp. 217~34. Lewis, Thomas E., "Semiotics and Interpretation: Before or After the Fact?," *Poetics Today*, vol. 6, No. 3, 1985. Miranda, Claudia, "'Dove' is the Dove?," *Reading Eco: An Anthology*, ed. Rocco Capozzi,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7, pp. 362~86. Rauch, Imengard, "Openness, Eco, and the End of Another Millennium," *RE*, pp. 137~46. Robey, David, "Introduction to *The Open Work*, Umberto Eco"(또는 "Umberto Eco," Michael Caesar and Peter Hainsworth(eds.)), *Writers & Society in contemporary Italy*, Berg Publishers, 1984, pp. 62~87).
- 3) 50년 가까운 에코의 지적 여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은 '전기호학적' 시기와 '기호학적' 시기 사이에 위치한다. 그 과도기의 양상과 중요성, 의미에 대해서는, 박상진, 「'열림'에서 기호학으로, 그 과정의 비판적 개관: 움베르토 에코의 '전기호학적' 글을 중심으로」(『이어이문학』 제5집)를 참조할 것.

변질 과정을 겪었는지를 고찰하려 한다. 이는 무엇보다 컨텍스트에 대한 에코와 나의 정의 사이의 변별성을 드러내주고, 더 나아가 내가 생각하는 컨텍스트 개념의 적절한 이론적 발전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전에도 간간이 그래왔지만, 특히 90년대 들어 에코는 텍스트 구조의 설명과 해석에서 차지하는 컨텍스트의 역할을 크게 강조해왔다. 그러나 컨텍스트에 대한 에코의 이해와 운용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 에코는 『해석의 한계』에서 이렇게 말한다.

텍스트는 세계를 관리 가능한 형태로 환원시키는, 상호 주관적인 해석적 담론에 열려 있는, 인간의 방법이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상징이 한 텍스트에 삽입될 때, 거기서 어떤 해석이 '좋은' 해석이냐를 결정할 방법은 없지만, 과연 어떤 해석이 '그' 텍스트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수신자의 환각적인 응답에 기인하는 것인지를, 컨텍스트에 기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직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LL, 21)

위의 글에서 보듯, 에코는 컨텍스트의 기능을, '좋은' 해석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단지 '수신자의 환각적 응답'에서 나오는, 즉 '좋지 않은' 해석을 가려내는 발판으로 삼는다. 이는 에코가 컨텍스트를 아주 소극적으로 대하면서, 컨텍스트 개념을 상당히 좁은 범위 내에서 다루고 있음을 말해준다. 컨텍스트를 이렇게 소홀히 대한 것은 결과적으로 에코가 해석의 한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 선명한 입장을 보여주지 못한 결정적 이유가 된다.

최근 들어 에코는 『해석의 한계』와 『해석과 초해석 *Interpretation and Overinterpretation*』(1992) 같은 책에서 해석에 있어 독자의 역할이 너무 강조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독자에 의한 해석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⁴⁾ 그러나 사실 '해석의 한계'가 의미하는 것은

에코에게 있어 새로운 것이 아니다. 해석의 한계는 에코가 1962년 『열린 작품』⁵⁾에서 다음과 같은 진술을 했을 때 이미 자동적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작가는 결국 독자에게 ‘끝맺어야 할’ 작품을 제공한다. 작가는 작품의 결론이 어떤 방식으로 날지 정확히 모르지만, 결론에 이른 작품이 여전히 ‘자신의’ 작품이라는 것을 안다. 다시 말해 해석적 대화의 끝에 가면 ‘자신의’ 형식——그것이 자신이 완벽하게 예견할 수 있었던 방식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조직될 수 있을지언정——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구체화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본질적으로 작가는 읽기와 해석의 유기적인 필요성들이 이미 합리적으로 부여되고 조직되고 방향이 잡힌 가능성들을 제공했었기 때문이다. (Oa, 58~59)

이러한 진술은 에코가 『열린 작품』에서 ‘열린 텍스트’의 시학⁶⁾을 구축하

4) 에코는 1990년 하버드 대학에서 가진 태너 강연에서 이렇게 말한다. “『열린 작품』을 쓰던 시절 나는 텍스트의 권리와 해석자의 권리 사이의 변증법을 연구하고 있었다. 나는 지난 수십 년 간 해석자의 권리가 과도하게 강조되어왔다는 인상을 갖고 있다.” Collini, Stefan(ed.), *Interpretation and Overinterpretation*,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p. 23. 이하 IO로 표기함. 우리말 번역본은, 『해석이란 무엇인가』, 손유택 역, 열린책들, 1997. 똑같은 구절이 다음 책에도 실려 있다. *U*, p. 6.

5) Eco, Umberto, *Opera aperta: forma e indeterminazione nelle poetiche contemporanee*, Milano: Bompiani, 1989. 이는 1972년에 간행된 제3판이다. 이 글에서 표기되는 『열린 작품』의 쪽수는 따로 판본을 명시하지 않는 한, 이 판본에 따른 것이다. 이하 Oa로 표기함. 영어판은 *The Open Work* tr. by Anna Cancogni, with an Introduction by David Robey,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9(영어판은 이탈리아어판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에코가 1968년 이전에 발표한, 소위 ‘전기호학적’ 글들을 대상으로 편집된 것이다). 우리말 번역본은, 『열린 예술 작품』(조형준 역, 새물결, 1994)을 참조할 것.

6) “『열린 텍스트』와 ‘열림’의 구체적인 개념 정의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할 수 있다. 박상진, 「기호학적 해석과 문화 분석: 에코의 『열린 작품』 개념을 중심으로」, 『이어이문학』 제2집, pp. 195~238, 한국어이어이문학회, 1995. 수정된 판으로는, 『열린 작품, 세계, 해석』, 『현대사상』, 1997년 겨울호, 민음사, pp. 85~113.

면서 텍스트성 textuality과 작가, 그리고 독자의 관계를, 그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으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데 이렇게 에코가 『열린 작품』에서든, 그로부터 30년 후에 쓴 『해석의 한계』에서든, 똑같이 해석의 한계를 말하고 있지만, 그 한계가 두어지는 곳은 사뭇 서로 다르다. 90년대 들어 에코는 한 마디로 해석의 한계는 텍스트 내에 있다고 단정짓는다. 텍스트 해석을 둘러싼 논의에서 작가의 의도, 독자의 의도, 그리고 텍스트의 의도가 때로는 맞부딪치고 때로는 협조하기도 하는데, 충돌이든 협력이든, 그들간의 관계는 결국에는 텍스트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작가와 독자, 그리고 텍스트의 의도가 절묘한 긴장 관계를 유지했던, 『열린 작품』을 비롯한 소위 ‘전기호학적’ 시기에서 그가 취했던 입장과 크게 벗어나는 주장이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해석의 한계』에서 에코가 열림의 개념을 다루는 방식은 『열린 작품』에서의 방식보다 더 치밀하다고 할 수도 있다.⁷⁾ 『열린 작품』을 중심으로 한 ‘전기호학적’ 작업 이래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쌓아온 기호학의 이론적 훈련과 체계화는 당연히 에코의 작업을 훨씬 더 정교한 것으로 보이게 만든다. 더욱이 에코 스스로 여러 차례 자신의 기호학을 ‘열림’의 체계화의 작업으로 생각한다고 공언한 이상,⁸⁾ 기호학이라는 방

7) 에코의 다음과 같은 진술은 펍 논리정연하고 원대하다. “텍스트는 축소될 수 없는 다의미적인 상징들이 사실상 축소되어 있는 곳이다. 왜냐하면 텍스트에는 상징들이 그들의 컨텍스트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중세의 해석자들은 옳았다. 우리는 과도하게 풍요로운 상징이 컨텍스트적으로 분명하도록 해주는 법칙들을 찾아야 한다. 현대의 감수성은 반대로 신화가 거대 상징이라도 되는 듯이 신화에 너무 매달린다. 끝없이 infinit 다양한 상징들을 인정하는 반면, 신화가 그 신화 스스로 함유하는 상징에 대해 부과하는 규범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대의 이론은 상징이 범열적 paradigmatically으로는 끝없는 의미에 열려 있지만 계사적 syntagmatically으로, 즉 텍스트적으로는 단지 불확정적인 indefinite, 결코 끝이 없지는 않은, 그리고 컨텍스트에 의해 허용되는 그러한 해석에 열려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내지 못한다. 이런 원리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의 텍스트가 하나의 유일한 의미, 어떤 해석적 권위에 의해 보장되는 의미를 갖는다는 ‘억압적인’ 생각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반대로 해석 행위는 열림과 형식의 변증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LI, p. 21)

8) Eco, Umberto, *Reflections on The Name of the Rose*, tran., William Weaver, London: Minerva, 1994, p. 47. 우리말 번역본은, 『장미의 이름 창작 노트』, 이윤기 역, 열린책들,

대하고 정교한 이론 체계의 옷을 입힌 '열린 텍스트'의 개념은 당연히 고도의 논리성을 과시할 수밖에 없을 터이다. 그러한 기호학 작업은 이론적 정교화와 함께, 열린 읽기와 해석의 한계를 그 이론 체계로 규정해내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해석의 한계』에서 에코는 '끝없는 해석 infinite interpretation'과 '불확정적인 해석 indefinite interpretation'을 구별하고 컨텍스트에 의지해서 해석의 한계를 설정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그는 과도하게 풍요롭고 모호한 해석적 자유의 신비를 벗겨내고자 하는 것이다.

주 6)에서 소개된 에코의 진술을 보면, 컨텍스트에 대한 그의 강조는 자연스럽게 텍스트성의 강조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에코는, 앞서 인용한 문구에서, 텍스트성의 강조가 단지 텍스트의 해석적 권위를 옹호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열림과 형식의 변증법'을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⁹⁾ 그러나 그 '열림과 형식의 변증법'이 얼마나 강하고 효과적으로 에코에 의해 이론적으로 일구어져왔는지는 의심스럽다. 또 에코는 포퍼의 '반증 가능성' 이론에 기대면서, 해석의 한계는 컨텍스트에 기초해서 설정되고, 텍스트는 자체의 컨텍스트화된 해석 contextualized interpretation 속에 작가와 독자를 끌어들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포퍼의 방법론에 대한 그의 믿음이 컨텍스트의 의미와 역할을 올바르게 파악하는데 적실성이 있는지는 역시 의심스럽다. 컨텍스트에 대한 에코의 태도에

1992; *Lector in fabula: La cooperazione interpretativa nei testi narrativi*, Milano: Bompiani, 1979, p. 8. 이하 *Lf*로 표기함. 우리말 번역본은, 『소설 속의 독자』, 김운찬 역, 열린책들, 1996; *The Role of the Reader: Explorations in the Semiotics Text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79, p. 3. 이하 *RR*로 표기함; *IO*, p. 23; *LI*, p. 6.

9) 이제까지 수많은 형태의 변증법이 에코의 지적 여정을 받쳐왔다. 그들을 대표하는 것은 형식과 열림의 변증법이다. 이는 텍스트 내부에서 축조된 현실과 텍스트 외부의 실제 현실의 종합적 인식과 실천으로 나아가는 방법론이다. 이것이 『열린 작품』에서 그 밑그림이 그려진 '열린 텍스트'의 기본적 기획이다. 그래서 에코는 이 변증법을 계속 언급해오면서 자신이 '열린 텍스트'의 기획을 기호학으로 완성해왔고, 자신의 기호학이 사회와 역사의 인식과 실천의 이론적 토대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는, 의미의 생장과 해석의 과정에서 차지하는 텍스트성의 가능성을 과소 평가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나는 예코가 저지르는 이러한 텍스트 중심적인 오류는 컨텍스트 개념을 다시 세울 때 자연스럽게 지적될 수 있다고 본다. 그가 생각하는 컨텍스트 개념에는 앞서 말한 '열림과 형식의 변증법'과 '열린 텍스트'의 기획을 기호학적으로 해결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근본적인 결함이 있는 것이다. 나는 그것이 컨텍스트를 텍스트로 치환하는 데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컨텍스트는 결코 텍스트 내에 가두어질 수 없다.

단언하건대, 예코는 기호학 체계를 구축하려는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실행해온 이래로 '열린 텍스트'와 해석, 그리고 컨텍스트의 문제를 텍스트성에 기대어 해결하려 했다. 『기호학 개론』(을 비롯한 여러 기호학 저서들)에서 예코는 컨텍스트를 "일정한 표현이 같은 기호 체계에 속하는 다른 표현들과 함께 발생하는 장소로서의 환경 environment"으로 정의하고, "하나의 표현이 그 컨텍스트와 더불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외부적 상태"인 '상황 circumstance'와 구별한다.¹⁰⁾ 그는 또한 컨텍스트를 '의미론에 의거해 어떤 한 표현이 일어나리라고 예견할 수 있는, 그러한 일련의 이상적 텍스트'로 정의한다. 예코가 컨텍스트와 상황을 애써 구별하는 것은, "실질적인 의사 소통 과정에 있어 한 표현의 실질적인 환경"인 사회 역사적 현실로서의 상황의 중요성을 무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오류다. 컨텍스트와 상황이 의미와 해석을 고려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유는, 컨텍스트의 경계가 텍스트가 아니라 현실과 역사를 향해 넓혀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코는 그가 상황이라고 부르는 것을 과소평가하고 컨텍스트라고 부르는

10) U. Eco, *A Theory of Semiotic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79(이하 Tsg로 표기), p. 112. 이탈리아어판으로는 U. Eco, *Trattato di semiotica generale*, Milano: Bompiani, 1975(이하 Tsg로 표기). 이 저작에서 시작하여 RR(p. 19), Lf(p. 78), *Semiotica e filosofia del linguaggio*(Torino: Einaudi, 1984. 영어판으로는, *Semiotics and the Philosophy of Languag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and London: Macmillan, 1984) (p. 66), 그리고 Lf(pp. 214~15)에까지 이런 입장은 꾸준히 유지·확장되어왔다.

것을 그저 자신의 체계를 이루는 데 있어 작은 파편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 결국 컨텍스트에 대한 예코의 이해는 단지 그 컨텍스트를 텍스트를 받치는 하나의 의미론적 단위로 축소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그가 꿈꾸는 기호학 체계는 사회 역사적 현실에 대한 심각한 고려 없이, 소위 '텍스트의 과학'을 이루려는 것으로 보인다.¹¹⁾

예코가 컨텍스트의 개념을 운용하는 데에는 해결되지 않은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 그것은 사회 역사적 현실과 주체의 문제다. 바꿔 말해, 예코는 현실과 주체의 관점에서보다는 텍스트의 관점에서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추어 해석의 한계를 정하려 하고, 그에 따라 텍스트 안에 있는 어떤 궁극적·초월적인 의미를 탐구하는 듯이 보인다. 그렇게 볼 때, 예코의 이론적 작업들은 이제까지 풍요롭게 전개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저지르는 위험은 아마도 본질주의 내지 근본주의라고 불리는 것일 것이다. 알갭게도 예코 자신이 일찌감치 『열린 작품』에서 독창적이고 논쟁적으로 구축했던 바로 그 '열린 텍스트'의 개념에서, 컨텍스트 개념에 대한 그의 이러한 뒤늦은 근본주의적 오해와, 주체의 가능성을 무시하는 그의 오만을 교정하는 단서가 발견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예코가 사실상 의도적으로나 본질적으로 『열린 작품』의 입장을 배반하고자 하지는 않았다는 사실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는 다만 '열린 텍스트'의 '이론'을 구축하는 데 실패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앞에서 지적했듯이(주 7), 그가 아직도 자신은 『열린 작품』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그렇다면 『열린 작품』에서 예코 스

11) 체계화 그 자체가 잘못이라는 말은 아니다. 언어 구조를 통한 체계화는 소쉬르의 언어학적 혁명 이래 현대의 거의 모든 이론가들의 꿈이었다. 구조주의와 기호학, 포스트 마르크스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등과 같은 현대의 이론들은 아마도 모두가 언어 구조에 의거해 현실을 해석하고 재구성하려는 시도들이라는 면에서 예외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로 삼을 것은 체계화 자체도 아니고 그 구조도 아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체계화, 또는 그 구조가 현실과 교류하는 능력 내지는 그 유효성이다. 다시 말해 하나의 체계화가 성공적이나 아니냐 하는 문제는 그것이 현실을 호흡하느냐의 여부로 측정할 수 있다.

스로 생각해낸 '열린 텍스트'의 개념을 잠시 살펴보는 일이 필요할 터이다.

II. 에코: 전기호학적 시기

에코에게 있어, 언어의 메커니즘과 텍스트성이 현실과 어떻게 관련을 맺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최초의 시도와 결실이 함께 이루어진 것은, 바로 『열린 작품』에서 컨텍스트의 개념을 다루면서였다. 컨텍스트의 문제는 사실 『열린 작품』에서 '열림'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다루어졌다. 에코가 말하는 '열림'을 결정하는 두 개의 주된 속성은, 오스카 켄슈어의 말을 빌면, "현대의 문화가 현실을 보는 방식을 반영하는, '인식론적 은유'로서의 파편적 형식, 그리고 그 파편적인 형식들간의 모호한 관계"를 들 수 있다.¹²⁾

예술은 세계를 인식하기보다는 세계의 보완물들을 생산한다. 예술이 생산하는 것은 현존하는 것에 부가되는 자율적인 형식들로서, 그것은 현존하는 것들의 법칙과 개인 삶을 드러내 보여준다. 모든 예술 형식은 과학적 인식을 대체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인식론적 은유로서 제 모습을 드러낸다. 말하자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예술의 형식이 구조화되는 방식은…… 과학이나 시대의 문화가 현실을 보는 방식을 반영한다. (Oa, 50)

『열린 작품』에 따르면, 한 예술 작품은 세계의 인식과 묘사, 또는 재현이라기보다는 세계의 보완적 생산물이다. 바꿔 말해, 예술 작품은 단지 현존하는 세계를 묘사하고 재현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제나 가능성으로서 제시되는 세계를 끊임없이 구성하는 어떤 것이다. 말하자면 예

12) Kenshur, Oscar S., "Fragments and order: two modern theories of discontinuous form," *Papers on Language & Literatur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volume 17, Number 3, summer 1981, pp. 227~43, 228.

술 작품은 세계를 생산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이다. 이 생산이 세계를 보완하는 데 제한되고 완전히 새로운 창조가 가능하지 않다 해도, 그 보완적인 예술적 생산은, 그것이 예술 작품의 역사성과 사회성을 가능하게 하는 이상, 가치가 있는 것이다.¹³⁾ 이런 측면에서 예술적 형식이 구조화되는 방식은 한 시대의 과학이나 문화가 현실을 바라보는 방식을 반영한다는, 소위 '인식론적 은유'의 개념은 꽤 선구적인 생각이었다.

에코에 따르면 현대 과학이 파악하는 현실과 그 과학이 그 현실을 표현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모호성에 바탕을 둔다. 현대 과학의 인식과 표현 방식을 반영하는 현대의 예술 작품은 따라서 모호성의 원리에 의해 조직된다. 에코는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작품은 모호한 만큼 고갈되지 않고 열려 있다.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법칙에 의거해서 질서지어진 세계는 모호성 위에 기초된 세계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Oa, 41~42)

『열린 작품』에서 논의되는 '열린 텍스트'의 모호성은 텍스트를 고갈되지 않게 만들고 비결정적인 해석을 향해 열리게 만든다. 바꿔 말해, '열린 텍스트' 안에 자리잡는 모호성은, 한편으로는 해석에 일정한 방향이 없도록 해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텍스트의 가치와 의미를 끝없이 추구하도록 해준다. 결국 에코에게 있어 모호성은 작품을 열려 있게 만든다. 다시 말해 '열린 텍스트'의 시학에 의거해서 작품을 생산하는 예술가는 자신의 작품을 열림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제공하게 된다. 작품은, 이러한 해석적

13) 세계의 보완적 생산은 "이미 구성된 사회적 현존의 실체"에 단순히 뭔가를 보탠다는 의미가 아니다. 예술적 생산의 기능, 또는 더 넓은 의미에서, 문화적 상징화의 힘은 텍스트와 현실을 연결시키는 다리의 역할을 맡을 수 있다. 문화와 정치학의 관계, 텍스트와 현실의 관계, 그리고 데리다의 경계선을 가리키는 개념으로서의 형식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할 수 있다. Ryan, Michael, *Politics and Culture: Working Hypotheses for a Post-Revolutionary Society*, London: Macmillan, 1989.

가능성의 팽창의 결과로, 문제적으로 된다. 예를 들어 브레히트의 서사극 같은 극작법에서 관객은 제안이나 결론을 제공받기보다는 극적 상황으로부터 비판적인 전망을 얻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에코는 설명하길, 브레히트의 극에서의 모호성은 하나의 특수한 사회 상황에 있어 그 모호성이 갖는 특수한 구체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그럼으로써 모호성은 그 관객이 속한 사회 역사적 현실에 관련하여 관객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된다(Oa, 44~45).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작가와 독자의 의식과 사회 역사적 현실이 어우러지는 양상이다.

에코는 '열림'의 기반으로서의 모호성이 불확정적인 제안의 단계와 감정적인 응답의 단계에서만 작동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Oa, 44). 모호성과 관련해서 볼 때 '열린 텍스트'의 원리는 언어의 단계에서 확인될 수 있다. 언어의 최종 단계가 현실의 함축과 구성 또는 생산이라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에코는 아마도 언어가, 자족적인 구조주의적 오류에 빠지지 않으면서, 자체의 체계 내에 사회 역사적 현실을 함유함으로써, 문화의 문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나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에코는 이 문제를 미적 언어에 기대서 해결하고자 한다. 에코에 의하면 미적 언어는 언어의 모호성과 자기 성찰성의 특징을 가진다.¹⁴⁾ 미적 언어는 현실을 바라보고 그 결과를 표현하는 특별한 자기 방식을 갖고 있다. 그것은 바로 모호성이다. 미적 언어가 지닌 모호성은 사실상 세계와의 상호 의사 소통이라는 언어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미적 언어의 작동 원리와 장치는, 언어의 구조만을 고집하거나, 또는 언어적 모델의 구성을 통해서만 밝혀낼 수 없다. 그 유일한 방법은 미적 언어의 모호성이 유지되고, 거기서 비판적이고 문제적

14) 에코의 미적 언어 개념에 대한 야콥슨의 영향은 에코가 기호학을 수립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문건을 참고할 수 있다. Umberto Eco, "The Influence of Roman Jakobson on the Development of Semiotics," *Roman Jakobson: Echoes of his Scholarship*, ed. by Daniel Armstrong and C. H. Van Schooneveld, Lisse: The Peter de Ridder Press, 1977, pp. 39~58.

인 전망을 자극받는 의식적 수신자의 능동적 역할이 강조되는, 그러한 하나의 그물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우리는 컨텍스트화의 과정으로 부를 수 있다.

『열린 작품』에서 에코는 의미의 내적 순환 체계가 미적 형식을 생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체계 자체의 자기 성찰성이 모호성을 품는 미적 형식의 탄생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그는 세계의 인식의 결과가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표현될 때, 그 예술 작품에 내재하는 미적 메시지는 필연적으로 모호성을 띠게 된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러한 급진적 모호성의 표본이 바로 ‘열린 텍스트’의 시학이다. 사실 의미의 모호성은, 무한하고 고갈되지 않는 왕복 운동의 체계를 제공하는, 텍스트와 독자간의 관계망 속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독자가 그 무한한 왕복 운동의 체계를 지탱하는 의식을 갖는 것이다. ‘열린 텍스트’는 독자에게 그 자체를 끊임없이 새롭게 하는 해석을 추구하도록 요구한다. 이런 구도 위에서, 독자는 그러한 요구에 부응할 필요가 있는 동시에, 그러한 작업을 통해서 현실을 파악하고 계속해서 고쳐나갈 힘과 비전을 가질 수 있다. 결국 텍스트가 열려 있다는 의미는, 텍스트가 자체 안에, 컨텍스트에 의거해 가능한, 다양한 의미와 다양한 해석들을 함유하고 있는 미적 그물망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열린 텍스트’의 이론은 컨텍스트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것은 단지 미적인, 또는 기교적인 단계에 머무르지 않는다.

III. 에코의 컨텍스트 개념 비판

전기호학적 시기에서 에코가 구성한 컨텍스트의 개념은 오늘날 소위 해체주의적인 사고 내에서 확인되는 것 같다. 이와 관련해서 구조주의적 사고에 대한 예리한 비판 작업으로서 데리다의 비평에서 우리는 배울 것이 많다. 혹자는 에코의 비판 도구로서 데리다는 근본적으로 적합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 전혀 교류할 수 없는 위치에서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러나 에코는 60년대 이래 지금까지 기회 닿는 대로

데리다를 언급하면서, 그와의 차별성을 뚜렷이 하려고 해왔다.¹⁵⁾ 더욱이 데리다의 탈중심주의적 개념들을 참조할 때, 우리는 에코의 기호학의 한계, 또 그것이 설정하는 텍스트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서, 경험성과 의식으로 무장된 한 개인의 윤리적·정치적 차원의 해석적 실천으로 선회하는 계기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데리다의 입장은 자유주의적이고 반권위주의적인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존재의 형이상학'을 거부하는 그 기획이 불가피하게 현실의 인식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모든 종류의 고정된 구조들에 대한 이러한 해체와 탈중심화의 방법론은 컨텍스트화라는 의미와 상응하는데, 이 컨텍스트화의 목적이 바로 현실과의 접촉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컨텍스트화된 해석의 개념에 의지할 때, 해석은 비로소 독자와 작가가 처한 사회문화적 상황의 재현적 가능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그 가운데 그들 자신의 이념을 재정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작가와 독자가 한 텍스트의 구조 내에서 이념적 함의를 구현하는 과정을 검토할 때, 바로 거기서 컨텍스트의 중요성이 확인된다. 이러한 검토는 텍스트가 어떻게 해석되고 해석의 한계는 어디서 설정되는지 하는 문제들과 직접 연결된다. 이러한 작업은 텍스트성이나 현실이나, 이론이나 실천이나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두 극단이 더 이상 대립되지 않는 곳이나 그 가능성을 찾아나서는 목적을 지닌다.

컨텍스트의 의미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 채, 에코가 최근의 저작들에서 해석의 한계를 설정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는지는 의심스럽다. 『해석의 한계』에서 에코는 해석이 기댈 수 있는 두 지점을 설정한다.¹⁶⁾ 그러나 에코 스스로가 각각 “형이상학적인 실재론”과 “연금술적

15) 에코가 데리다에 대해 처음 언급한 곳은 *La struttura assente*(Milano: Bompiani, 1968)에 서였다. 그후로 *If, II*에서 데리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굳게 유지된다.

16) “한편으로는 텍스트를 해석한다는 것은 그 원래의 작가에 의해 의도된 의미, 또는 어떤 경우에서는, 그 객관적인 성격이나 본질, 즉 우리의 해석과 독립된 어떤 본질을 발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 텍스트가 무한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가정도 있다”(II, p. 24).

기호 과정 *Hermetic semiosis*”이라고 부른 이 두 지점은 처음부터 잘못 설정된 것 같다. 전자는 단적으로 말해 해석의 궁극적 지점이 이미 제시되어 있다는 것이고, 후자는 해석의 지평은 무한히 열려 있다는 것이다. 이 두 대립 지점을 생각한 예코의 목적은 사실 포퍼식의 방법에 기대면서 해석의 한계를 세워보려는 것이었다.¹⁷⁾ 다시 말해 그의 논의의 궁극적인 도달점은 단지 두 극단을 배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해석의 가능한 유형이 왜 이렇게 극단적인 두 지점으로 구분되어야 하는지는 이해하기 힘들다. 아마도 그 두 지점이 모두 해석의 기준으로서는 온당치 않음을 보이고, 그 둘을 배제함으로써, 해석의 적절한 한계를 찾으려고 했던 것 같다. 그러나 이런 해결은 두 지점의 어느 쪽의 편도 들지 않는 채 단지 그 둘 사이에서 어정거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의 결론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두 극단 사이에서 어정거리는 상태, 말하자면, 경계선 위에 위치하는 것이 온당함을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코가 두 극단 점 사이에서 머뭇거리던 바로 그 지점으로서의 경계선은, 컨텍스트의 개념을 통해서 발견될 수 있다. 말하자면 컨텍스트는 예코가 도달하기를 주저하며 어정거리던, 바로 그 어정거림 자체를 가리킨다. 해석의 한계는 근본주의에도, 연금술적 기호 과정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예코는 해석이 좋은지 나쁜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공감적 판단’을 제시했고, 이는 다시 공동체적 합의에 의지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정작 ‘공동체의 합의’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예코의 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대신 공동체적 합의를 텍스트의 내적 일관성으로 치환시키려는 의도는 무수히 발견된다.

어차피 해석은 해석자의 편견이나 믿음에 깊이 연루될 수밖에 없다. 그

17) “[.....] 비록 하나의 해석이 좋은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해도, 어떤 것이 나쁜 해석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나의 목적은 무제한적인 기호 과정이 무엇이나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무엇이 그 무제한적인 기호 과정이 아닌가, 또 무엇이 그 기호 과정이 될 수 없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다”(LI, p. 42).

것을 초월해 중립적이고 순수한 해석은 엄밀히 말해 존재하지 않는다. 중립적으로 보이는 해석이라도 그것은 중립을 가장한 어떤 의도를 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텍스트의 내적 구조에 초점을 맞추면서 텍스트가 해석을 위한 기준이나 한계를 제공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그 자체가 텍스트에 기댔으로써 해석자 '자신의' 해석적 의도를 은폐하거나 왜곡시켜 드러내려는 방책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에코가 염려하듯이, 해석의 한계를 텍스트 내에 두지 않는다면 어떤 한 텍스트에 대해 전혀 엉뚱한 해석이 나오는 예가 있을 수 있다.¹⁸⁾ 예를 들어 드라이버는 나사를 풀고 조이는 연장이지 귀를 후비는 도구는 아니라고 에코는 주장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우리는 드라이버로 귀를 후빌 수도 있고 소포를 뜯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이를 쏠 수도 있다. 이렇게 나가다보면 한없는 무정부주의적인 혼란 속에 빠진다는 우려도 할 수 있지만, 일단 에코는 이러한 로티의 실용주의적 반론에 너그럽게 동의를 표한다. 그러나 드라이버가 재떨이로도 또한 사용될 수 있다고 버티는 로티의 견해는, 더 이상의 양보 없이, '황당한 사용'의 예라고 엄중하게 비난한다.

나는 에코보다는 로티가 컨텍스트에 기반을 둔 해석의 기준을 더욱 적절하게 제시해준다고 생각한다. 드라이버를 재떨이로 쓴다는 것이 에코가 보기에 '황당'하다는 것은, 이전에 드라이버가 쓰여졌던 방식, 또는 드라이버라는 도구가 만들어진 목적에 비추어 볼 때에야 나올 수 있는 반응이다. 그러나 기존의 방식이나 목적을 존중해야 할 필연성은, 그것이 절대와 불변의 이름으로 포장되지 않는 한,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문제삼을 줄 아는 해석자, 즉 의식적 주체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그럴 때, 드라이버가 지닌 사용 방식과 목적은, 단지 그 해석자가 어떤 하나의 기준이나 체계를 받아들일 때에만 통용되는 것으로 된다. 여기서 내가 주목하는 것은, 그 '받아들'이는 행위의 주체다. 그 행위자적 주체는 반드시

18) 이에 대해서는, *IO*(pp. 139~51)를 참고할 것.

기준과 체계에 포섭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그들을 문제삼는 데서 그 주체의 존재 자체는, 비록 '황당'하다는 비난을 받을지라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에코의 합리적 주장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황당한' 점을 찾을 수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대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의 이러한 입장이 결국 귀착하고 기대는 것은 행위자적 주체가 배제된 '공감적 판단'이고, 그에 대한 논의는 텍스트의 내적 구조 내지 일관성을 추적하는데 집중되어왔다는 사실이다. 에코가 로티의 실용주의적 관점에 대해 맞서는 지점은 바로 이렇게 '텍스트'의 확정된 구조와 특성에 기반을 둔 사물과 사건의 일관된 성격에 의지해서, 그들의 용도, 나아가서 그들의 해석의 한계를 설정하자는 것이다. 그런 종류의 논의는 우리가 이제까지 컨텍스트라고 불려왔던 것을 잘못 이해했거나 무시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다시 말해 해석의 한계가 명확하게 그어지는 곳은 바로 컨텍스트인 것이다. 컨텍스트는 드라이버가 반드시 제 용도로만 사용될 필연성은 없으며, 사실상 '제 용도'라는 정의 자체가 무엇이고 어디에 근거를 두는지를 문제삼는 데서, 그 영역을 확보한다. 바꿔 말해, '공감적 판단'이 어떻게 컨텍스트에 의지하여 보완되는지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에코의 미완의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해석의 한계를 설정하는 길을 찾을 수 있다.

보충해 말할 것은 해석의 한계와 기준이 두어질 곳은 텍스트도 아니고 텍스트 외부 현실이나 해석자의 심중도 아닌, 그 중간 지점이라는 것이다. 중간에 선다는 것은 양쪽의 어느 것도 취하지 않으면서 둘 다 취하는 것이다. 이 중간에 서기, 데리다식으로 말하면 '경계선에 서기'는 '컨텍스트'라는 말로 개념화될 수 있다. 이러한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컨텍스트적 위치는 텍스트를 현실로 풍요롭게 하고 현실을 텍스트로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그러한 컨텍스트적 위치를 객관화시키는 것, 즉 타자와의 소통 과정 속에 위치시키고 그 과정 속에서 또한 그 자체가 끊임없이 변화의 여정을 걷는 일이다.

3. 컨텍스트의 지평

I. 텍스트에서 컨텍스트로

이제 에코식의 이해와 해결이 아닌 다른 식으로 컨텍스트를 바라보고 그 의미를 확장시켜보고자 한다. 이는 에코의 기호학이 컨텍스트를 다른 방식에 대한 하나의 대안적 전략을 위해 다른 방식의 이론적·개념적 밑그림을 그리려는 것이다. 이것이 그의 기호학 자체를 부정하는지, 또는 보완하는지는 지금으로서는 말할 수 없으나, 어쨌든 그것이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들—경험, 의식, 주체, 윤리, 정치 등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은 확실하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컨텍스트의 지평은 텍스트를 넘어서서 역사와 현실로 나아가야 하는데, 거기에는 곧 '기호학의 문턱'을 넘어서는, 방금 열거한 문제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는 다시 이 글의 제일 처음에서 제기한 텍스트와 현실이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쨌든 언어를 사용하는 이상, 세계와 역사에 대한 구조적 인식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언어는 이미 그 자체가 구조화되어 있는 하나의 체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언어 자체가 구조냐 아니냐를 넘어서서 언어에 갇히느냐 아니냐를 점검하는 것이다. 결국 이는 언어와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그 언어와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언어는 모든 경험에 개입하고, 근원적으로 사회적인 것이다. 따라서 언어를 통해 언어적 구조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역설적인 발상은 동어 반복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관념론적이고 본질주의적이며 반(反)역사적인 언어적 구조와 텍스트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경험을 기초하는 사회역사적인 현실로 눈을 돌리고 거기에 개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즉 언어를 통해 언어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개인의 순전한 내적 경험에서 빠져나오는 것인 동시에 객관적이고 궁극적으로 주어지는 현실 세계에 함몰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가는 곳은 바로 개별자적 경험과 객관적 현실이라고 불리는 것이 충돌하는, 다시 말해서 개별적 주체들이 실제로 조직하고 경험하며 공유하는 현실이다. 반복하자면, 우리의 언어적 경험은 근본적으로 사회적이다. 왜냐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개인적인 언어란 없으며, 언어를 생각한다는 것은 사회적 삶의 전체 형식을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텍스트와 사회와 역사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인간의 존재 상황이 역사와 함께 구성되는 것처럼 또한 언어에 의해 구성된다는 것이다. 구조주의가 표방하는 텍스트성은 존재에 대한 그 수동성으로 인해 역사의 장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언어는 사회 문제를 설정하고 풀어나가는 데 하나의 중심축과 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인식의 근저에는 언어가 모든 경험에 개입하는, 근원적으로 사회적인 것임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컨텍스트를 텍스트와 현실을 매개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볼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컨텍스트를 이루는 것이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앞의 논의에서 컨텍스트는 텍스트의 생산과 소비의 전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설명되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과정이 예컨대 마르크스주의적 의미에서의 생산 방식에 관련된, 말하자면 객관적 역사성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컨텍스트는 그러한 객관적 역사성이나, 또 그것이 온전히 텍스트의 오묘한 체계 내에 코드화되고 다시 온전히 해독될 수 있다고 믿는 구조주의, 또는 포스트 구조주의식의 논의를 옹호하지도 않는다. 컨텍스트는, 그런 의미에서, 사회 역사적 현실이라 불리는 것도, 텍스트에서 그려지는 현실도 아닌, 오히려 작가와 독자의 경험성의 영역에서 형성되는 텍스트의 해석과 재창출의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컨텍스트는 작가와 독자의 경험과, 또 더 나아가 의식과 깊이 관련을 맺고 있다. 그리고 그 경험과 의식은 작가와 독자의 심리학적·언어적 구조물이라기보다는 사회 역사적 상황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¹⁹⁾

이런 측면에서 작가와 독자의 경험 세계는 해석 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에코는 모델 작가와 모델 독자라는 극히 체계 내적인 장치를 들이대면서 경험적 작가와 독자가 지닐 수밖에 없는 경험적 영역을 무시하고 그 영역이 구조적 체계에 흡수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는 태도를 보인다.²⁰⁾ 적어도 이런 입장에 관하여서 볼 때, 에코가 설명 작가에 의해 미리 설정된, 매우 유연한 통제를 상상한다 하더라도, 경험적 존재로서의 그러한 작가의 역할은 텍스트 내에서 용해된다고 보는 것이 에코 자신의 입장인 것은 틀림없다. “작가는 의미론적 상관 관계를 세울 수 있는 텍스트적 전략일 뿐이다”(LJ, 61) 라는 에코의 진술은 이런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에코는 『장미의 이름』을 어떻게 읽는가』를 썼다. 제목이 가리키듯, 이 책은 『장미의 이름』을 읽는 방법에 대한 해설서라고 생각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 책은 독자가 『장미의 이름』의 더욱 효과적인 읽기를 위해 그것을 참조하는 이상, 텍스트에 대한 하나의 해설서로 취급될 수 있다. 그러나 에코가 해설서를 썼다는 사실은 경험적 작가로서의 에코가 해석에 개입하고 해석을 통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에코는, 해석은, 작가의 편에서든, 독자의 편에서든, 텍스트의 단계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에코의 이러한 입장이 텍스트성이 해석의 한계를 품어야 하고 또 작가와 독자의 경험적 영역을 아우른다는 텍

19) 예컨대 주체의 심리적·언어적 양상은 라캉에 의해 면밀하게 탐구되었다. 정체성에 대한 언어의 우위성, 언어에 의해 조개어진 ‘분할된 split’ 주체, 그리고 기표들의 끝없는 미끄러짐에 대한 라캉의 강조는 사회 역사적 컨텍스트가 아니라,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서 파생된 언어적·텍스트적 과정에 주목하는 결과를 낳는 것 같다. 라캉의 언어적 반인문주의의 프로젝트는 어느 정도 그 자체로는 수궁이 되지만, 다른 한편, 그의 주체의 개념은 언어학 원리에 의해 결정되고 정의된 어떤 것으로 의식을 취급한다. 그래서 의식적인 주체는 결국 언어적, 또는 텍스트적 과정에 갇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 역사적 상황에 대해 의식적인 경험적 주체가 기표들의 전위 displacement에 의해 결정되는 라캉식의 주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해석적 실천에서 차지하는 컨텍스트의 근본적 역할은 따라서 경험적 주체에 의해서 배타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20) 모델 작가와 독자 이론에 대해서는, RR과 LJ를 전반적으로 참고할 것.

트 중심적 입장이라는 것이다. 반면 컨텍스트는 그 세 축이 더 이상 어느 한 곳으로 쏠리지 않는 지점 내지 마당을 가리킨다.

작가와 독자는 어디까지나 경험적인 존재로서, 텍스트를 생산하는 주체다. 작가의 죽음이라는 선언과 함께 작가는 텍스트에 존재 이유를 내어준 지 오래다. 그와 함께 작품 생산의 중심축은 오히려 독자의 몫으로 돌아갔는데, 이는 전통적인 세계관에서 작가가 중심이 되는 것과 대조되는 구조주의적 발상이기도 하다. 어쨌든 독자의 역할이 중요하게 떠오른 것은 자연스럽게 해석의 기능으로 눈을 돌리게 만들었는데, 이 해석이야말로 텍스트의 의미를 결정짓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텍스트를 현실과 포개어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독자에 의한 해석이 텍스트성에 의거해서 텍스트의 구조적 원리를 추적하는 데 한정된다면 해석은 의미 생산의 유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따라서 구조주의가 주장하는 텍스트성, 또는 에코의 기호학이 고수하고 있는 텍스트 전략은, 독자의 해석마저 텍스트 내에 한정시킴으로써 독자의 경험적·의식적 주체로서의 영역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앞서 말한 텍스트 중심주의에 동조하는 것일 뿐이다. 텍스트를 강조함으로써 전통적 개념의 주체가 완전히 지워지는 것까지는 기존의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친다 해도, 각 개인의 경험적·의식적 영역을 어쨌든 무시할 수는 없다. 이런 의미에서 컨텍스트는 독자의 해석이 텍스트의 한계에서 탈출해서 현실로 나아가는, 다시 말해 텍스트의 의미를 현실적 영역으로 확장하는 길을 제공한다.

이러한 컨텍스트적 위치에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험적이고 의식적인 주체의 존재가 필요하다. 여기서 경험적이라는 것은 모든 종류의 관념화되고 판성화된 사고와 존재에 대한 반성적·비판적 입장과 실천을 가리키고, 의식적이라는 것은 그러한 입장과 실천을 받쳐주는, 일종의 깨어 있는 축수를 의미한다. 누군가에게 해석의 한계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을 때, 대답은 텍스트 내부나 외부, 아니면 그 양자간의 변증법적 과정

중의 하나로 나올 수 있다. 그러나 해석이 어디에 근거를 두든지간에, 중요한 것은 그 해석은 가치 평가의 문제와 연결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앞서도 말했듯이 그 자체로 순수한 중립적인 해석은 있을 수 없고, 해석에는 어차피 해석자의 가치 평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나는 해석자의 의식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영역으로서 컨텍스트를 설정하는 것이다.

혹자는,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지만, 해석이 텍스트와 현실을 매개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참여적 비평이 하는 일이 아니냐라고 해서 그리 새로울 것이 없다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결국에 이르는 길이 같다고 해서 그 과정까지 모두 도매금에 넘길 수는 없다. 참여적 비평, 참여 문학은 역사와 현실이 중심이 되는 일종의 현실 중심주의다. 그것 역시 현실과 역사를 최종 도달점으로 삼는 일종의 도그마적 인식에 간혀 그외의 것들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는, 중심주의의 오류를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이제 길은 모든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그 방향이 잡힌다. 그것은 첫째, 주체의 개념을 새로이 가다듬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체는 합리주의의 소산으로서가 아니라 역사화된, 컨텍스트화된 주체다. 컨텍스트화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컨텍스트야말로 모든 중심에서 벗어나는 경계로서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 영역에서는 모든 것이 절대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지 않다. 심지어는 그 영역 자체도 없다. 그러기 위해서 컨텍스트라는 영역은 자체를 부정하는 끝없는 부정의 순환에 들어가야 한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데리다가 말하는 "존재와 부재의 유희"를 통해서다.²¹⁾ 존재와 부재의 유희는 단순히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존재와 부재의 양자 택일" 이전에 우리가 고려하고 검토해야 할 것으로 '급진적'으로 이해된다. 즉 거기에는 존재도 부재도 없고 단지 그들의 유희만이 있

21) Derrida, Jacques, "Structure, sign and play in the discourse of the human sciences," Lodge, David(ed.), *Modern Criticism and Theory: a Reader*, NY: Longman, 1988, pp. 108~23을 볼 것.

다는 것이다. 존재와 부재의 유희 자체를 전면애 내세움으로써 존재와 부재의 간격은 끊임없이 분쇄되고, 그래서 모든 존재와 구조와 합리적 주체는 끝없이 반복적으로 해체된다.

혹자는 또, 텍스트와 현실의 만남을 논하는 데 있어 현실을 미리 전제한다는 면에서 그 논의는 또 다른 실재론, 즉 존재론적 형이상학이 아니냐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현실 자체가 이미 거기 있다는 식으로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해체되고 재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따라서 텍스트가 궁극적인 참조점으로 삼는 현실은 그 자체가 어디에도 매이지 않기 때문에, 텍스트 역시 끝없이 해석된다. 이 말은 무책임한 무정부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 사회적 컨텍스트와 주체의 의식이 맞닿는 지점에서 형성되었으면서 동시에 또한 얼마든지 해체의 대상이 되는 상태에서 현실을 보아야 한다는 의미다. 경계해야 할 것은 실재론이나 존재론보다도 우리의 관념이나 방법이 관성화되고 패턴화되는 것에 있다.

II. 컨텍스트의 정치학

컨텍스트라든가 경계선의 개념이 중도·중립화의 개념에 닿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것들을 가지고 순수와 고립으로서의 중립적 입장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커다란 착각일 것이다. 중립화의 개념 자체는 또 하나의 입장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윤리의 공간으로 이행해야 한다. 컨텍스트의 정치학은 구조주의와 기호학이 장려하는 '차이'의 논의들을 넘어서는 것이다. 차이는 그 중립성(그저 겉보기에)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항 대립과 그로 인한 차별(예컨대 여성과 환경 문제)을 조장하고 공고히 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다. 차이에 기초한 이론은 모든 종류의 중심 지향적 열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차이의 이론은 궁극적 존재성에 호소를 하기 때문이다. 소쉬르적인 이항 대립에서 나온 구조주의가 이성 중심주의의 형이상학을 대체한 또 다른 종류의 구조 중심적 형이상학이라는 비판은 여기서 나온다. 언어 구조만을 상대해서는 우리는 이성 중

심주의에서 탈출할 수 없을뿐더러, 의미를 생산하는 언어 구조 자체도 고찰할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컨텍스트와 주체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중심주의를 해체하고 언어의 구조화와 해석 과정을 사회 역사적 현실과 관련시켜 고찰하기 위해서는 컨텍스트의 영역을 설정해야 하고, 그 컨텍스트는 주체의 실천에 의해 구성되기 때문이다.

컨텍스트는 텍스트를 대체한 개념이다. 즉 구조주의적 기획에서는 텍스트가 세계가 짜여지고 풀어지는 마당이 되는 반면, 그 구조주의적 기획의 부조리함을 바로잡기 위해 그 텍스트에서 벗어난 영역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컨텍스트다. 일찍이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은 텍스트에서 현실을 본다는 착각을 경계하면서, 일종의 형식적 기교를 사용하거나 형식의 변형에 비평의 초점을 맞추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습관화된 친밀한 형식에 대한 재인식을 끌어내고자 했다. 이른바 ‘낯설게 하기’라고 불렀던 이 수법과 개념은 물론 텍스트와 현실이 서로 관계를 맺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지만, 그 재인식조차도 형식과 구조에 경도됨으로써 또 다시 현실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런 구조화의 되풀이, 구조화를 향한 기울기에 대처하는 유일한 길은 컨텍스트에 주목하는 것이다.

또, ‘낯설게 하기’는 일상 언어를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시킴으로써 일상적인 세계를 낯설게 만들고, 그 결과 세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문제는 일상적인 언어가 과연 존재하느냐 하는 것이다. 일상 언어가 무엇인지 때와 장소에 맞추어 충분히 규정되지 않을 때 무엇이 일탈이고 ‘낯설게 하기’인지도 불분명하게 된다. 문제는 그 일탈이 컨텍스트에 의거한다는 사실이다. 어떠한 사회 역사적 상황이나, 그리고 어떤 의식과 경험을 지닌 개별적 주체나에 따라 일탈의 규정과 정도와 의미는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언어)구조와 세계의 관계를 따질 때, 언어의 일탈 자체보다는, 사회 역사적 현실과 의식, 경험적 주체와 관련하여 컨텍스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컨텍스트의 개념은 실천의 개념을 도입하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컨텍스트의 영역은 실천 위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곧 컨텍스트의 영역이 비결정적이고 역동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말해준다. 우리의 관념이나 방법이 관성화되고 패턴화된다는 것은 곧 어느 한 곳—그 지점이 어느 곳이건간에—에 매여 있다는 말이다. 어느 곳에도 매여 있지 않은 상태가 곧 컨텍스트의 상태다. 컨텍스트와의 역동적 관계 속에서 활동하는 주체는 바로 이러한 매여 있지 않은 컨텍스트에, 역설적으로, 매여 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현실과 역사에 대해 반응하고 도전하는 실천과 함께 컨텍스트 자체를 이루어나간다. 그러는 가운데 사회 역사적·경험적 현실은 온전하게 주체의 인식과 실천 속으로 들어온다. 여기서 ‘온전하게’라는 말은 그 현실 자체의 변화무쌍함과 역동성이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이제 텍스트의 해석이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하느냐 하는 것에서, 텍스트 해석과 현실, 그리고 경험적 주체, 특히 해석자의 문제로 발전된다. 구조주의식의 해석 작업은 궁극적으로 구조를 통해서 텍스트의 구조와 생성의 방식을 파악하려는 목적을 지니기 때문에, 구조를 넘어서기는 힘들다. 여기서 해석은 경험적 주체 하나하나의 지각 방식을 결정짓는 사고 체계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경험적 주체가 설령 하나의 공동체의 합의와 공감에 의한 문화적 협상의 범위에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협상에 의해 열리는 수많은 가능성들 속에는 무시될 수 없는 경험적 사실들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한 협상은, 료타르도 지적하듯이,²²⁾ 어떤 규범에 의지하는데, 그 규범 속에서 개별성과 복잡성은 극도로 축소되어, 그 개별성과 복잡성에 근거를 두는 경험적 주체는 체계의 원활한 작동에 필요한 부품으로서만 기능한다. 여기서 우리는 개별적이고 경험적인 주체가 그러한 공동체의 합의와 공감에

22) Lyotard, Jean F., *Le Condition postmoderne: Rapport sur le savoir* (Paris: Minuit 1979); *The Postmodern Condition*, Trans. Bennington and Massumi,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4, pp. 60~62.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할 필요성과 그 윤리적 가치를 생각하게 된다.

이런 방향에서, 언어가 현실을 텍스트로, 또 텍스트를 현실로 말아넣는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것, 그리고 하나의 컨텍스트를 구성하는 데 있어 기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언어는 비록 우리가 간혀 있는 감옥일 수 있을지언정, 해체되어야 할 대상인 동시에 그 사회 역사적 함의를 탐구하는 데 소용되는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이렇게 사회 역사적인 사건들이 언어 구조로 치환되고 거꾸로 언어 구조가 사회 역사적인 움직임으로 건너가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다. 사실상 포스트 구조주의와 포스트 마르크스주의의 전통은 언어 구조와 현실간의 밀접한 접목을 실현하려고 노력해왔다.²³⁾ 그러나 언어로부터의 탈출이든 언어적 함의를 겨안는 것이든, 그들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언어와 사회 역사적 현실의 연결이라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그러한 연결을 받쳐주는 영역 내지 존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규명하는 일이다. 그것이 이제까지 말한 의식적 주체의 실천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영역으로서의 컨텍스트다.

에코가 기호학 체계에서 운용하는 컨텍스트의 개념은 급진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그의 컨텍스트 개념은 여전히 언어적 구조 내에만 안주해 있고, 그래서 현실에 적용되는 데 어려움과 한계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주체성과 개인적인 이념적 시각 내지는 선입견이 독자가 텍스트에

23) 언어 구조에서 탈출하려는 욕망은, 언어 구조가 구체적이고 끊임없이 변하는 시공간 속에서 살아 있는 존재로서의 인간이 계속해서 탈출하려고 하는 일종의 감옥이라는 해체적 의식에서 비롯한다. 다른 한편, 우리는 그러한 풍요로운 노력들이 폭넓은 관심 속에서 수행되어온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알튀세와 사이드, 마쉴리와 제임슨, 그리고 이글튼 같은 이론가들이 70년대 주로 행한 작업들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작업은 텍스트의 과학을 이루는 것으로 끝을 맺거나 아니면 속류 마르크스주의의 객관주의적 역사성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들에게서 소홀히 취급되는 것은 주체와 실천의 문제다. 이런 측면에서 이들 구조주의적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마르크스로 돌아가는 일이다.

접근할 때 작용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에코의 '경고'(RR, 22)에서, 우리는 의식적 주체와 실천이 담긴 컨텍스트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작동시키지도 못하는 에코의 처지를 인식할 수 있다. 여기서 컨텍스트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구조적이고 의미론적이며 화용론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성격을 띤다.

기호학 체계와 '열린 텍스트'의 이론은 모두 에코가 일구어낸 체계들인데, 그들간에 과연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에코의 기호학과 거기에 기반을 둔 해석 이론은 어느 정도 현실에 관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관여성은 그 이론적 설명 내에서만 효과가 있고, 더욱이 그것조차도 충분히 강력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들간의 차이는 그들 체계의 현실 관여성 보다는 의식과 실천에서 나온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이것이 에코의 텍스트 기호학의 약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위에서 고찰한대로, 우리는 에코가 전기호학적 시기에 구축했던 '열린 텍스트'의 개념을, 또 에코 기호학 비판에 대한 데리다와 로티의 기여를, 경험적 현실과 의식적 주체를 함유하는 이론적 체계를 구축하려는 생산적인 시도로 연결할 수 있다. 텍스트와 현실의 행복한 결합은 컨텍스트에 기반을 두는 해석 활동에 의해 가능하다. 따라서 컨텍스트에 기반을 두는 해석은 텍스트를 현실에 적용하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이 풍요롭다면, 그것은 현실이 무한하게 다양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러한 해석이 한계를 지닌다면, 그것은 해석이 텍스트 자체보다는 현실에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해석의 지평을 열려는 에코의 시도들은 텍스트성에 기대는 것이었다. 텍스트성 안에서 에코는 해석소, 무제한적 기호 과정, 백과사전, 추론적 메커니즘, 모델 독자와 모델 작가 따위 같은 여러 기호학적 개념들을 세련되게 운용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들을 통해서, 또는 그러한 개념들로로는 우리는 현실에도, 역사에도 이를 수 없다. 에코가 자신의 기호학적 작업의 긴 항해의 끝에서 제안했던 포퍼식의 방법은, 컨텍스트를 포용하고 그 위에 서면서 비로소 현실과 역사를 호흡할 수 있다고 확신함으로써, 더욱 가

시적으로 구체화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해석의 지평은 체계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컨텍스트에 의거해서 계속해서 변화해야 하는 것이다. 바꿔 말해, 대상으로서의 실천과 실천으로서의 대상을 생각하는 마르크스의 입장을 견지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해석이 실질적으로 열림의 실천인 동시에 '열림'의 대상임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열림'의 실천에 있어서 해석 자체가 열려져야 할 대상으로서 객관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해석의 한계가 두어지는 곳, 또는 해석이 열리는 곳을 밝혀낼 때, 우리는 해석이 '열림'을 결정한다는 것, 즉, 해석의 해석은 '열림'의 조건을 만들어내는 작업이고, 이것은 다시 컨텍스트를 구성해내는 작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4. 맺는 말

—이론적 정당화의 길

이제까지 우리는 에코가 자신의 전기호학적 시기와 기호학적 시기에서 각각 다르게 구성한 컨텍스트 개념을 문제삼으면서, 그 개념을 에코와 다른 입장에서 이론화하는 작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에코의 협소한 컨텍스트 개념, 또 요즘 들어 더욱 눈에 띄게 거기에 토대를 두는 그의 텍스트 기호학의 파생적 개념들은, 나름대로 텍스트 해석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그 지평은 하나의 구조를 구축하고 그것만을 음미하는, 단지 텍스트 과학이라는 구조주의적 잔여물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 충족적인 자기 정당화 논리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 여기서 간과되는 것은 바로 텍스트의 구성과 해석의 수행자로서의 주체, 더 정확히 말해, 그 주체의 경험과 의식의 영역이다. 자신의 전기호학적 시기에서 에코는 의식적 주체에 의한 텍스트 해석이 어떻게 구체적인 사회 역사적 현실에 텍스트를 성공적으로 관여시키는지 풍요롭게

보여주었다. 반면 기호학적 시기에서는 그런 구도가 텍스트의 과학, 또는 기호학의 제국을 건설하는 데 편입되고 만다. 이를 에코 스스로는 이론적 발전이고 체계화라고 주장하지만, 거기서 의식적 주체라는 이름은 분명 제 값을 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에코 기호학은 사회기호학이라는 평가도 받으면서 나름대로는 현실과 주체, 역사의 문제를 기호학의 체계를 통해 해결해보려 애쓴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이 짧은 글에서 컨텍스트 개념의 재구성을 통해 시도한 텍스트와 현실의 행복한 교류 과정의 이론적 정당성 부여 작업은 기호학을 통한 에코의 고민과 작업에 통째로 포섭된다고 보는 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똑같이 이론화를 목표로 삼는다고 해서 그 이론화의 결과와 의미가 반드시 같지는 않는 사실이다. 에코의 이론화는 체계와 구조를 고도로 정밀하게 다듬는 것에 그 목표를 둔다. 거기에는 주체의 경험과 의식이 들어설 변변한 자리가 없고, 따라서 그의 체계와 구조는 객관화되고 그 자체로 결정적이 되는 것이다. 반면 그러한 체계와 구조를 그야말로 개체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의식적 주체가 현실과 역사와의 꾸준한 관계를 유지할 때, 비로소 그 체계와 구조는 객관성과 결정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과정 전체가 바로 컨텍스트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다.

이론은 의식의 산물이자, 사회와 역사에서 그 의식을 실천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틀을 형성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의식적 존재로서 이론을 생산하지만, 또한 (그 이론에 대해) 의식적이 되기 위해서는 이론에 의지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론은 우리가 이론화의 과정을 통해 의식을 형성하는, 그럼으로써 사회와 역사에 대한 의식을 구성하는 하나의 틀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 전체 속에서 “이론화하는 의식적 존재”로서 우리는 사회와 역사, 그리고 이론 자체에 대한 의식을 견지하면서 이론을 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에코의 기호학이 열림의 개념을 이론화하는 가운데 저지른 객관주의적 오류를 피하는 길을 찾을 수 있다. 에코의 기호학은 요컨대 텍스트의 내적 일관성을 목표로 하고 세계를 텍스

트 내에 코드화하려는 구조주의적 기획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다른 결을 그리는 이론을 구축하는 일이다. 이는 자기 정당화나 만족이 아닌, 그래서 사회와 역사와 교류하는 꼴을 이루어야 한다.

이와 같은 논의에서 나는 궁극적으로 상대주의적 입장을 정치하게 옹호하고자 한다. 상대주의의 이론화·체계화가 가능한가 하는 근본적인 회의에는 사실 이론과 체계에 대한 거의 맹목적인 추종의 자세가 깃들여 있다. 글 처음에 이론적 정당화라는 과제가 이 글의 저변에 스며들어 있다고 말한 것은 바로, 에코 기호학이 기호와 역사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구성해낸다고 하면서 정작 비역사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비판보다는, 그러한 구성을 위해서는 도대체 그외의 다른 어떤 종류의 이론이 가능할까 하는 의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구조주의, 포스트 구조주의, 기호학, 그리고 구조주의적 마르크스주의를 비롯한 우리 주위를 떠다니고 있는 모든 종류의 객관주의적 인식론을 넘어서는 상대주의의 정치한 이론과 실천을 꿈꾸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참고 문헌

- Derrida, Jacques(1979), "Living On: Border Lines," Bloom et al., *Deconstruction and Criticism*, New York: Seabury, pp. 75~175.
- (1988), "Structure, sign and play in the discourse of the human sciences," Lodge, David(ed.), *Modern Criticism and Theory: a Reader*, NY: Longman, pp. 108~23.
- Eco, Umberto(1990), *I limiti dell'interpretazione*, Bompiani, Milano. 영어판으로는, *The limits of Interpretation*,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94(프랑스어판에서 옮김, 『해석의 한계』, 김광현 역, 열린책들, 1995).

- (1994), *Reflections on The Name of the Rose*, tran., William Weaver, London: Minerva(『장미의 이름 창작 노트』, 이윤기 역, 열린책들, 1992).
- (1992), *Interpretation and Overinterpretation*, Collini, Stefan(ed.),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해석이란 무엇인가』, 손유택 역, 열린책들, 1997.)
- (1989), *Opera aperta: forma e indeterminazione nelle poetiche contemporanee*, Milano: Bompiani, vii edizione. 영어판으로는, *The Open Work*, tr. by Anna Cancogni, with an Introduction by David Robey,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9 (『열린 예술 작품』, 조형준 역, 새물결, 1994).
- (1979), *Lector in fabula: La cooperazione interpretativa nei testi narrativi*, Milano: Bompiani(『소설 속의 독자』, 김운찬 역, 열린책들, 1996).
- (1979), *The Role of the Reader: Explorations in the Semiotics Text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1979), *A Theory of Semiotics*, Indiana University Press, Bloomington. 이탈리아어판으로는, *Trattato di semiotica generale*, Milano: Bompiani, 1975.
- (1984), *Semiotica e filosofia del linguaggio*, Torino: Einaudi. 영어판으로는, *Semiotics and the Philosophy of Languag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4.
- (1968), *La struttura assente*, Milano: Bompiani.
- (1977), "The Influence of Roman Jakobson on the Development of Semiotics," *Roman Jakobson: Echoes of his Scholarship*, ed. by Daniel Armstrong and C. H. Van Schooneveld, Lisse: The Peter de Ridder Press, pp. 39~58.

- Kenshur, Oscar S.(1981), "Fragments and order: two modern theories of discontinuos form," *Papers on Language & Literatur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volume 17, Number 3, summer 1981, pp. 227~43.
- Lyotard, Jean F.(1979), *Le Condition postmoderne: Rapport sur le savoir*(Paris: Minuit); *The Postmodern Condition*, Trans. Bennington and Massumi, Mi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4.
- Ryan, Michael(1989), *Politics and Culture: Working Hypotheses for a Post-Revolutionary Society*, London: Macmillan.